

업의 성과가 현저히 미진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낙농가의 10분의 1이상 또는 전년 도말 기준 사육하는 젖소의 4분의 1이상을 사육하는 낙농가의 연서를 얻어 낙농단체에 자조금의 거출여부와 거출금액을 결정하는 대의원의 선출을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조금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는 자조금사업 추진의 지속성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다.

자조금사업의 평가결과는 이 같은 자조금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차기 년도의 자조금운용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매 회계연도마다 조성·운용된 자조금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가 자조금사업의

이해 당사자들에게 철저히 공개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필자는 많은 산고 끝에 결실을 맺은 낙농산업의 의무자조금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한 몇가지 제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은 의무자조금사업이 낙농산업의 현안문제를 일거에 해결해줄 것이라는 지나친 기대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조금사업은 낙농산업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에 낙농가 스스로도 참여하여 일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의무자조금사업이 낙농가들의 산업에 대한 자부심과 응집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부디 자조금사업이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낙농자조활동자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사)제천영양사협회장 곽동경



최 근 우리나라 낙농업계는 WTO/DDA농업협상과 낙농선진국과의 FTA체결로 인한 시장 개방과 혼합분유를 포함한 유사 유제품의 수입증가 그리고 웰빙을 트렌드로 하는 기능성 음료 등 대체 음료 증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낙농가들의 협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동안에도

낙농가 중심으로 낙농자조활동자금을 조성하여 우수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낙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된 낙농자조금 조성은 과거에는 60%의 농가 참여로 이루어졌으나 올해부터는 축산물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의무자조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낙농자조활동자금을 이용한 우수소

비 촉진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리라 기대합니다.

우유는 우리가 꼭 식품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는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이며 칼슘(Ca), 철분(Fe), 구리(Cu), 아연(Zn), 요오드(I) 등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는 우수한 식품입니다. 특히 우유는 국민영양건강조사 결과 칼슘 섭취 공급원식품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는 식품입니다. 조사 결과 우리국민은 하루 77.7mg의 우유를 섭취하고 있으며, 2위인 멸치보다도 2배 가까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국민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는 칼슘으로 하루 평균 510mg을 섭취하고 있어 건강을 위해 권장하고 있는 하루 섭취량인 700mg에 비하여 약 200mg정도 부족합니다. 칼슘은 성장기에 적정량을 섭취하지 못하면 골격 형성 등 성장 발육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35세까지 형성되는 뼈 속의 골량을 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되어 노년기에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유에는 100g당 100mg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으며 흡수율이 40%로 생선(33%)이나 채소(19%)에 비하여 체내 흡수가 잘되는 우수한 칼슘 공급원식품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우유 200ml 1~2팩을 더 섭취한다면 칼슘섭취 부족량은 어느 정도 보충될 수 있으며 칼슘 부족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유소비 촉진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 낙농자조활동자금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 낙농자조활동자금으로 개발한 요리를 적극 홍보하여 가정이나 단체급식메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유 영양밥, 우유 된장국 등은 칼슘이 풍부한 요리로 우유 섭취가 많이 요구되는 학생들을 위한 단

체급식용으로 영양이나 기호도면에서 호응도가 매우 높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요리들에 대한 홍보를 한국낙농육우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하는 것 보다는 영양·조리관련 협회, 학회와의 교류를 통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사)대한영양사협회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우리 축산물 소비 촉진사업의 하나로 캠페인과 더불어 전국민에게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축산물을 이용한 요리를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개발한 요리는 전국 의 단체급식현장에서 식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도 캠페인이나 시식회를 통하여 개발한 요리를 보급하여 우유를 활용한 요리가 얼마나 맛있으며 영양학적으로 우수한지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건강과 관련된 전시회 및 박람회가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으므로 이런 자리를 통해 국민들과 직접 만나 우유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시식회를 벌이는 것 또한 소비 촉진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TV광고가 있습니다. 현재 자조금의 약 50%가 TV광고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광고인 만큼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단순히 인기 연예인이 흰 우유를 즐겁게 마시는 장면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부터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육구와 식품과 영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만큼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광고가 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인기 연예인을 활용한 소비자 관심 증대 효과를 누리는 광고 이외에도 우유의 영양학적 가치를 전달 할 수 있는 광고가 이루

어려야 할 것입니다. 식품영양 전문가가 우유의 영양성분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전문적인 지식 전달을 통하여 우유의 우수성을 알린다면 우유 섭취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를 대변하듯 식품과 영양에 대한 건강 정보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비용을 절감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등과 같은 건강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브로콜리'의 효능을 방송한 뒤 브로콜리의 소비량이 급증했던 바와 같이 우유의 효능과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다룸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섭취의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만 의무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우유급식을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위한 연구 조사, 섭취 환경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섭취환경 조성사업의 하나로 각 학교에 우유 냉장고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우유를 잘 먹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우유를 상온에 보관하여 맛이 없는데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유가공업계와의 윈-윈 전략의 일환으로 냉장고를 설치하여 많은 학생들이 우유를 맛있게 마실 수 있도록 한다면 우유를 맛있는 음료로 인식하게 되어 소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낙농자조활동자금사업은 원유를 생산하는 낙농가 개인적으로나 그들 일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로 함께 수행해나가는 사업입니다. 보다 효과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낙농가와 유가공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 됩니다. 농가는 스스로 목장의 환



경을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농가에서부터 소비자의 식탁에 제공될 때까지의 전 생산, 유통 과정에서 국민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우유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들을 국민들에게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유가공업계는 변화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제품 연구 개발에 힘써 저지방, 칼슘, DHA공급 백색시유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7년간 운영해오던 낙농자조금사업이 의무자조금사업으로 전환되는 해입니다. 낙농자조활동자금사업은 우유의 소비 홍보, 새로운 유제품 개발과 보급 및 소비자 교육과 조사 연구를 통한 우리 우유의 안정적 소비 기반 확대와 올바른 정보제공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낙농가와 국민 모두에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의무자조금사업이 낙농가와 유가공업계 모두의 협력으로 빠른 시간 내에 안정된 기반을 이루어 나가리라 기대합니다. (사)대한영양사협회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우리 우유의 우수성을 적극 알리고 식습관 형성이 시작되는 영유아나 풍부한 영양 공급이 필요한 청소년기의 우유 섭취를 증가시키는 등 우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